

새싹 편지

2011. 6월호



Woosong News

- 1학년 튜리아트 관람
- 여름학기에 대한 기대감
- 2학년 유치원 견학
- 프로젝트 접근법 수업

Our Story

- 하지영 교수님 인터뷰
- 우송대학교 best11 선정



1학년 튜리아트 견학



2011년 5월 25일, 유아교육과 1학년 학생들은 대전 엑스포에서 전시하던 NEO 튜리아트 대전특별전을 관람하였습니다. 튜리아트는 불어인 truc(속임수, 트릭)과 art(예술)가 합쳐진 합성어로 입체그림으로 표현하는 초 리얼리즘 예술입니다. 튜리아트는 벽면과 바닥면, 천장 등에 투명도가 높은 페인트를 이용하여 그린 예술로서, 보는 사람의 시각에 착각을 일으켜 그림을 입체적으로 보이는 예술입니다. 또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그림을 보다 가까이 하고, 상상하며, 체험할 수 있어서 그림과의 친근함을 더욱 증가시켜 예술 교육은 물론 창의력 사고까지 기르는 새로운 종합 체험 공간 예술입니다. 기존의 딱딱한 미술관의 이미지를 일소하고,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인 만큼 학생들은 NEO 튜리아트



대전특별전을 관람하면서 그림을 보고, 느끼고, 만지며 추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 개발을 위한 예술 교육의 장인 튜리아트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번 튜리아트를 체험한 기회를 경험삼아 몇 년 뒤에 유아교육 현장에 나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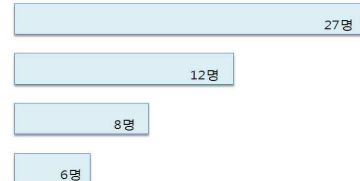
첫 여름학기에 대한 기대감!



2011년 6월 15일 1학년 첫 여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학교를 들어와서 처음으로 듣는 여름학기여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여름학기는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또 처음 대학생활의 첫 여름방학을 맞이하는데 여름학기를 들음으로 시간이 방학이 너무 짧다

여름학기에 대해서

- 더 많은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27명
- 공부 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로워졌다. 12명
- 자격증 취득,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 8명
- 늦잠을 안 잔다. 6명



는 불평도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름학기를 듣는 것에 대해 다른

유아교육과 A, B반 총 53명 설문 조사 결과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름학기를 시작하면서 다른 학교와는 다른 4학기제를 함으로서 다른 학생들이 낭비할 수 있는 시간에 더 공부를 하여 자기개발을 더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방학이 같아도 생활리듬이 불규칙해져서 다시 개학을 했을 때 힘든 경우가 많은데 여름학기를 들음으로서 생활 리듬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름학기 전에는 전공위주로 공부하느라 조금은 소홀했던 영어공부에 학기 중보다 더 투자할 시간이 늘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여름학기를 수강하여서 학업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서울의 유치원은 어떨까요?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2학년 학생들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명일유치원과 올림픽유치원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2학년 학생들은 서울



에 위치한 유치원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지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처음으로 간 곳은 명일 유치원으로 학생들에게 잘 운영되고 있는 공립유치원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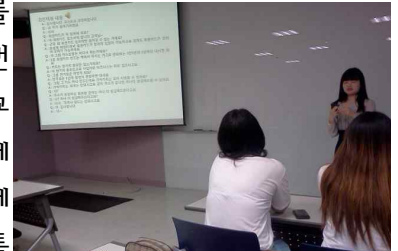
주고 있었습니다. 또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부모님과 함께 하는 수업과 주위 유치원들과 교구도 나누어 쓰고, 운동회 등을 같이 하는 네트워크유치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영역별로 교구들도 유아의 흥미에 맞게 잘 배치되어있어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갔던 올림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넓은 실외 놀이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령별로 운동장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주제들과 영역들을 비교하며 자신이 배운 대로 구성되어있는지를 관찰하기에 바빴습니다. 유치원을 다 둘러보고 두 유치원 다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1학년 때 처음 대전에 있는 유치원에 처음으로 갔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유치원 교사답고, 조금 더 전문지식을 가진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접근법 수업을 해보다!

2011년 6월 3일 유아교육과 2학년 학생들이 프로젝트 접근법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체험한 결과물을 선보이는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총 3조가 발표에 참여하였는데 학

생들이 흥미롭고 개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팀별로 조지망 짜기 부터 시작하여 표상활동까지 이루어진 교육과정을 잘 끝마쳤습니다. 프로젝트 접근법이란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학습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유아들이 협동학습을 전개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를 흥미롭게 접근하여 심도있게 학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의 발표에서는 대전시의 대형마트인 'COSTCO'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두 번째 조에서는 '우송대 맛집 정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주었으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는 유아교육과 영어교수님이신 제임스에 대해 '제임스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탐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세 번째 조는 프로젝트법을 완전히 잘 이해하여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발표였습니다. 특히 이 활동은 유아들에게 프로젝트 접근법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교사를 교육시키는 활동임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 하 지영 교수님 인터뷰

이번 호에서는 유아교육과의 미소천사 하 지영 교수님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언제나 항상 상냥한 말씨와 미소가 매력적인 하 지영 교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 먼저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번에 우송대학교가 처음으로 온 학교였기 때문에 긴장과 설렘이 가득해요. 그리고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수업을 재미있어하고 많은 질문과 관심을 가져주어서 수업하는 동안 감동했어요.

- 유아교육과 학생만의 특별한 점이 있나요?

유아교육과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을 가져려고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 밝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 만약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면 지금쯤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취미생활로 제과제빵을 하고 있어요. 아마 교수가 되지 않았다면 직업으로 제과제빵사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만든 빵을 누군가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직업으로 삼는다면 정말 매력 있을 것 같아요.



☞ 다음페이지에

- 교수생활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셨던 일이 있으신가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생활에서 아이들한테 배운 점이 더 많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주로 영아들을 상대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비록 엄마는 아니지만 이렇게 잘 커 주는 걸 보고 있으면 뿌듯하고 대견스러워요.

- 마지막으로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후에 선생님이 될 사람들이니깐, 선생님이란 말이 부끄럽지 않게 교사다운 모습을 조금씩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만 학생본분의 모습을 잃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송대학교 best 11에 선정되다!

-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에 선정

이번 호에서는 유아교육과 학과장님이신 성 원경 교수님과 함께 선진화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교수님! 학부교육선진화사업이란 무엇인가요?

학부교육선진화사업이란 'ACE' 즉 'Advanced College Education'의 자격을 갖춘 대학을 선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준비를 해서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선도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는 대학에게 주는 것이죠. 우송대학교도 선진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우송대학교가 실시해온 학부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보고서로 이루어 낸 것이랍니다. 우송대학교가 ACE사업에 선정된 주요한 내용은 국제화와 취업밀착형 수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과를 나타낸 것이며, 또 하나의 주요 내용은 1년 4학기를 통해 학생들을 보다 잘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그럼, 학생지도와 ACE 사업 추진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물론 강의, 학생지도, 연구, 취업지도 등 힘들고 바쁘지만 ACE사업도 유아교육과 학생과 우송대학교 학생의 역량을 계발시키고 보다 좋은 교육을 실시하며,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겨울에 우리 학과 학생들이 일본연수라는 좋은 기회를 갖고 안목을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에 선정되었기 때문이었죠. 이와 같이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 학과, 대학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것도 교수의 역할입니다. 다행히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성실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잘 따라오고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어 학생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3. 선도대학 선정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CE사업에 선정된 것은 전국에서 11개의 잘 가르치는 대학, 특성화된 대학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며 이는 향후 우리 대학의 위상이 높아짐은 물론 사업 선정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게 되어 현재까지 해오던 우송대학의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해요. 특히 대전충청권 사립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되었다는 것은 예비대학생 중 우수학생들이 우송대학교를 지원하도록 하는 중대한 지표가 될 수 있지요!



유아 상식

“유아 언어교육 비디오 효과 없어”

美 캘리포니아대 연구팀 “되레 단어구사력 떨어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언어 교육용 비디오나 DVD 등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팀이 1일 밝혔다. 생후 12~24개월 된 아이들이 교육용 비디오나 DVD를 시청해도 새로운 단어를 습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구팀이 밝혔다. 유아용 교육 비디오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생후 5개월부터 비디오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생후 12~24개월 유아 96명과 이들의 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용 비디오 등이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사했다. 조사 대상 유아의 절반가량은 집에서 일정 시간 교육용 비디오 등을 보도록 했다. 그러나 6주가 지난 뒤에 조사한 결과 비디오 등에서 가르친 단어를 유아들이 습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교육용 비디오가 유아의 일반적인 언어 능력 개발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기적으로 교육용 비디오를 본 유아들이 오히려 이를 시청하지 않은 유아에 비해 단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이 교육용 비디오를 보면 그만큼 부모와 함께 행동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언어 능력 개발에 지장을 받는다고 연구팀이 설명했다.

숨은 그림 찾기



<찾을 그림>

여자구두, 압정, 뭇, 운동모자, 아이스크림, 뱀다귀

4단 만화



<더위를 먹다>

By. 도바기

<발행처>

우 송 대 학 교 유 아 교 육 과 <http://childedu.wsu.ac.kr>
0 4 2) 6 3 0 - 9 3 6 0 대 전 광 역 시 동 구 자 양 동 1 7 - 2 (3 0 0 - 7 1 8)

<발행인> 성원경 <편집인> 이예지

<만든이>

- * 박민정 * 안선경 * 이예지
- * 김연수 * 문진아 * 송하나 * 박혜령
- * 김민아 * 이정은 * 조아름